

미술, 시대를 증언하다

김우성·박경호·이하 작가 '삼풍백화' 전, 30일까지 광주 Bhc갤러리
노무현 전 대통령 주제 '보루' 전 30일까지 오월미술관
민주주의 열망 '오월의 자화상' 6월 30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

'예술, 시대를 기록하다' 작가들은 역사를, 삶의 현장을 외면할 수 없다. 오월을 맞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다양한 발언을 담은 전시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오월 광주와 부마항쟁을 연결하고,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역할을 했던 전직 대통령을 기억한다. 또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의 기록들도 관람객을 만난다.

다. 지난 부산 시장 선거에서 불거졌던 'LCT' 의혹을 빚던 작품이다. 이 하 작가는 심각한 내용을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가볍게 풀어낸 작품을 선보인다. 비틀즈의 유명한 앨범 표지를 패러디해 각국의 대통령을 등장시킨 '이매진'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문익환 목사, 김구·장준하·백기완 선생 등이 함께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자전거 탄 사람들' 등이다.

'부마에서 광주까지'
1979년 10월 부마항쟁과 1980년 5월 광주. 독재에 저항하며 끝까지 투쟁했던 변혁의 시대를 관통하며 그림으로 발언하고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외쳤던 청년들은 40년의 시간을 지나며 더욱 단단해졌다. 부마항쟁과 5·18을 겪은 부산 작가와 광주 작가들이 자신의 역사적인 시간을 담아 광주에서 그림으로 만난다. 역사의 한복판에서 민주주의 열망을 예술로 표현하며 부산과 광주가 끊임없이 만나고 교류할 것임을 선언하는 전시이기도 하다. 오는 6월 30일까지 '오월의 자화상-부마에서 광주까지'를 주제로 갤러리 생각상자(광주시 동구 소태동 577-2)에서 열리는 전시에는 부산과 광주 지역 작가 6명이 참여했다. 광주에서는 전정호·홍성민 작가와 함께 과학자와 철학자의 사유를 그림으로 담아낸 김용근 동강대 교수가 참여해 '우리 안에 오월' 연작을 선보이고 있으며 부산에서는 박영화·김형대·박경호 작가가 함께 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보루(堡壘) - 예술이 된 노무현'
오월미술관(광주시 동구 문화전당로 29-1)은 오월을 맞아 '사람사는 세상'을 갈망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보루(堡壘) - 예술이 된 노무현'전이다. 법현이 오월미술관 관장과 함께 오월의 중심에 우뚝 자리 매김하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정의와 철학에 동의한 11명의 작가들은 회화, 조각, 서각, 사진 등 자신만의 조형성으로 그의 삶을 풀어냈다. 김광래 작가의 '우리 모두의 얼굴, 노무현'은 작가가 두 달 동안 빛은 대통령의 흉상(胸像)이다. 오랜 기간 그의 사진을 들여다본 작가는 깊고 서늘한 눈빛과 삶의 고뇌, 작은 미소까지 머금은 대통령의 모습을 구현했다. 시골의 소박한 돌담길을 묘사한 김민홍 작가의 '돌담길 산책', '평화마을'은 평안과 안식을 갈구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은 작품이며 서영실 작가의 '섬이 된 바위' 연작은 소나무와 균건하게 우뚝 솟은 바위, 해와 달을 통해 그의 굳건한 '신념'을 표현했다. 또 박성완 작가는 '노란 한복'과 '잠'을 통해 그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게 한다. 그밖에 배달래·배일섭·윤우영·이기성·최대주·최선동·최은태 작가 등이 함께했다.

'2021 삼풍백화(三風百畵)
한국 사회 권력에 대한 꾸준한 풍자작업을 해온 세 명의 작가가 뭉쳤다. 김우성(광주), 박경호(부산), 이하(서울) 작가다.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변화의 시작점으로서의 순기능을 보여주고자' 그들이 함께 한 '2021 삼풍백화(三風百畵)'전이 오는 30일까지 광주 Bhc갤러리(광주시 동구 공동 27번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이후 부산 복합문화예술공간 'MERGE?'(6월5일-19일), 서울 자인제노갤러리(7월1일-10일)로 이어진다. 김우성 작가는 자본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시선을 앞세운 작품 '헬시티'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가로폭 5m에 이르는 대작 '헬시티'에는 자본주의의 병폐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공포의 자판기가 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김 작가는 '헬시티'에서 돈만을 좇는 사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투쟁하는 사람들, 부패한 검찰, 제 역할을 못하는 정치인, 일그러진 재벌 등의 모습을 원색의 강렬함과 사실적인 묘사로 표현해 생생함을 전달한다. 박경호 작가는 몽크의 '절규'를 패러디한 'LCT 한 깨달음' 등의 작품을 통해 풍자 정신을 선보인



박성완 작 '잠'

부마에서 광주까지



김용근 작 '우리 안에 오월' (부분)



김우성 작 '헬시티' (부분)

광주비엔날레 3일 남았어요

제13회 광주비엔날레 폐막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Minds Rising, Spirits Tuning)'을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서는 40여개국 69작가(팀)가 참여해 40점의 커미션 신작 등 모두 450여 작품이 관람객을 만나는 중이다. 9일 막을 내리는 올해 행사의 주제는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광주박물관, 광주극장 등 광주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가 끝나기 전 서둘러 현대미술의 향연을 즐겨보자. 전시관에서는 무료 오디오 음성 해설 '큐피커'를 활용해 설명을 들으며 관람할 수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비담'의 '승승장구' 무대가 열린다

8일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 일환으로 진행되는 '비담'의 '승승장구' 무대가 오는 8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판소리 '흥보가'와 '춘향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곡 '제비점고 제비노정기'와 '사랑가', 민요 '너영 너영'과 '군밤타령' 주제로 국악장단과 재즈 리듬이 어우러진 '너랑 나랑 단발타령'을 선보인다.

또한 '아리랑' 모티브로 한과 얼이 담겨져 있는 '끝나지 않은 아리랑', 그리고 5월 광주의 모습을 떠올리며 만든 연주곡 'gwangju(光州)'를 김근희 씨의 소리와 '비담'의 연주로 꾸민다. 공연 후반부는 '비담'의 창작곡 '승승장구'와 'one night in busan', '노란나비(귀천)' 연주로 마무리한다. 이날 공연에는 임바울(베이스), 이인준(일렉 기타), 유경빈(건반), 이승현(드럼), 이채선

(가야금), 최성욱(해금), 김근희(소리) 씨가 출연한다. '비담(BIDAM)'은 국악과 재즈, 전통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전통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연주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공연은 선착순 20명으로 제한하며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한다. 문의 062-670-850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